

‘종별수가계약제’ 신중 접근 합의 공단이사장·의료계 단체장 회의

요양급여비용 적정화 연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공동연구기획단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추진검토 과제의 하나인 각 단체별로 수가를 계약하는 ‘종별수가계약제’는 타당성 연구를 우선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기로 했다.

이성재 공단이사장과 정재규 협회장, 김재정 의협 회장, 유태전 병협 회장, 안재규 한의협 회장 등 의약단체장들은 지난 2월 2일 오후 팔레스호텔에서 공동연구기획단 출범에 앞서 사전 협의 회의를 갖고 향후 추진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연구 기획단 연구 과제 중 하나로 종별수가 계약제를 선택 할지를 놓고 논의했으나, 의협만 찬성 했을 뿐 치협, 약사회, 한의협 등에서 신중한 검토를 촉구, 우선 타당성 연구를 진행한 뒤 과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기로 했다.

종별수가계약제의 경우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치협, 한의협, 간협 등은 정부나 의협으로부터 상대적 피해를 볼 수 있어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 정책이다. 만약 이 수가 계약제가 도입되면 보건 의료계 전체의

힘이 분산되고 한정된 건강보험재정파이를 각 단체가 서로 많이 확보하려 치열한 경쟁발생이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공동연구기획단 단장을 김재정 회장이 맡는 것을 주장했으나 치협을 비롯한 참여단체들이 거부감을 표시, 결국 이평수 공단상임이사와 박효길 의협 보험담당 부회장이 공동간사를 맡는 간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한편 공단은 이날 회의에서 공동연구기획단 연구사업의 세부 내용을 제안했다.

연구사업 세부내용으로 공단은 ▲적응중인 환산지수 수준의 적정성 확보차원에서 환산지수 산출방법의 검증 및 개발 ▲환산지수 산출에 활용하는 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외 의료수가 조정 사례 및 방법을 조사하고 ▲기존 의료수가 조정방법을 평가하며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 대안작성과 평가 등을 제시했다.

공동연구기획단 운영은 2월 14일부터 시작기로 했다.

수련고시이사·위원회 신설된다 치협 학술위, 4월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기로

치협에 수련고시이사과 수련고시위원회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학술위원회(위원장 김종열)는 지난 2월 22일 앰배서더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에 열릴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신설의 사유로 치과의사전문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학술위원회 업무가 전공의 수련 및 치의전문 의 자격시험 업무 등으로 집중됨에 따라 기존 학술위원회를 학술위원회와 수련고시위원회로 분리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제시했다.

또 수련고시이사를 신설하는 대신 학술이사를 2인에서 1

인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에도 일치를 보았다.

앞으로 수련고시위원회에서는 ▲치과의사 수련병원과 전공의 교육에 관한 사항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루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단기 GP 과정을 개설해서 개원의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실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인턴제 폐지, 치의학교육평가원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종열 위원장은 “담당 이사와 위원회가 신설됨으로써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없이 발전없다” 정 협회장, 진수희 의원면담 대책 촉구

치협의 치대 입학정원 감축과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에 대한 대 국회 여론 형성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2월 24일 오전 국회의를 방문, 진수희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을 면담하고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와 치대 입학정원 감축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치대 입학 정원 감축문제는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과잉인 만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난 만큼 이는 반드시 이행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협회장은 또 “그 동안 치과 의사 과잉여부를 국민 인구 대비로만 판단했으나, 최근엔 치과 의사의 업무 분주도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며 “현재 치과 의사 업무 분주도가 높지 않은 것은 그만큼 과잉이라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정 협회장은 특히 “치과 의사나 의사가 많아지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듯이 개원가에서는 살기 위해서라도 과잉진료나 무리한 신기술이 동원되는 의료왜곡 현상이 올 것”이라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료가 제공되려면 적정수의 의료 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협회장은 또 “국립대 치과 병원 독립법인화와 관련, 전국에 국립대 치과병원이 서울대치과병원을 포함해 모두 6곳이 있으며, 이중 경북, 부산, 전남, 전북 등 4개 치과병원은

인사·예산권도 없이 의대병원에 예속돼 있는 실정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치과병원의 독자적 발전은 영원히 없는 만큼, 진 의원이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교육부가 염려하는 것은 국립대병원의 재정이 부실하다보니 치과병원이 독립 회계로 빠져나갈 경우 더욱 부실화되는 것을 우려하더라”면서 “그러나 자신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치협이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자료를 보내달라. (자신도) 국립대 병원이 방만한 경영 등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고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을 준비중 이었는데 치과계 주장 내용이 수용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 진 의원은 측은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에 대해 이미 분석을 마친 상태였으며, 추후 시간이 있으면 해당 당사자인 치과병원 관계자들과 만나 정확한 실정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 협회장은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의 경우 교육위원회 소속의원들 이해가 절실하다고 보고 앞으로 19명의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모두 만나 설득할 예정이다.

정 협회장은 그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진수희 의원을 포함, 조배숙·구논희·복기왕·최재성 의원 등 모두 5명의 의원들을 면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바 있다.

“양단체 지속 협력속 현안 연구” 치협·치기협 지도치과의사제 TF팀 회의

치협과 대한치과공사협회(이하 치기협)는 지도치과의사제도와 관련해 양 단체가 지속적인 협력 속에서 현안에 대해 연구,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치협과 치기협 지도치과의사제도 TF팀은 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갖고 양 단체 실무팀을 중심으로 서로간의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재영 협회담당 부회장은 “양 단체가 치과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단체인만큼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서로의 입장만 고집할게 아니라 서로의 권익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마경화 협회이사는 “양 단체가 함께 지도치과의사제도의 발전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아가자”고 당부했다.

송준관 치기협 부회장은 “향후 양 단체 실무팀을 통한 지속적인 현안 연구를 통해 지혜로운 방안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치협에서는 김재영 협회담당 부회장을 비롯, 마경화 협회이사, 김세영 협회위원, 손정열 기획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치기협에서는 송준관 부회장, 최인규 협회이사, 주희중 법제이사, 박재만 기공이사 등이 참석, 논의를 가졌다.